

자유토론

질문자 : 먼저 김광명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인문학을 통합과학의 시점에서 보신 것에 대해서 매우 참신하게 다가왔고, 그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볼 때, 더 온전히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문학의 역사를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최근 버지니아의 조승희 사건이라든지,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사건, 새만금의 생태계 문제, 그리고 온난화와 미래 지구의 위기라든지 당장 한국과 같은 경우 2007년 대선과 정책문제,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인 통찰과 반성, 그리고 그 대안제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명 : 제가 이 페이퍼에서 제기했습니다만, 인문학에 대한 대안 제시는 이를테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고, 그렇게 제안한다는 것은 이미 인문학적인 어떤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연과학 일반에서, 이를테면 기계공학적인 것을 내과학적인 것과 연관시키고 심리학적인 어떠한 접근으로 연관시켜서 자연과학 일반 안에서 통합 학문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과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인문과학이 접근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지녀야 할

가치나 규범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이 똑같이 그 연구 과정에 그 프로세스에 참여해서 얻어지는 여러 데이터들 과학적인 데이터들 말이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평가, 과학적인 평가 면에서 매우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아까 예시한 새만금 문제나 생태계 문제나 이것도 구체적으로 현상으로 이렇다 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인간사회 문제가 아니냐,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깐 하나의 예를 들으면 안락사 문제 있잖아요. 안락사. 죽음의 문제가 뭐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죠. 종교적인 문제도, 법학적인 문제도, 의학적인 문제도. 그런데 이것이 새롭게 개입되어서, 숨이 멎을 때가 죽은 것인지, 심장이 멎을 때가 죽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가 죽은 것인지, 문제는 인문학자가 굳이 현상을 분석해서, ‘숨이 멎었구나’, 아니면 ‘심장이 뛰고 있구나’가 아니고, 그것이 미치는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치문제가 이제 여러 사실에 기반해서 그런 의미에 부여하게 될 때, 그 의미 부여의 문제가 이제 해석학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인문과학을 통합하려고 할 때는 통합의 기준이 바로 해석학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해석이 가능하지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해는 되지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는 상호보완적이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의 초점은 인간의 삶이라 볼 수 있겠고, 인간 삶의 어떤 가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존적인 문제, 윤리 문제, 그것들에 대해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삶이 점점 더 짧아지고, 죽음이 다가오고, 죽음 앞에서 태연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문제, 실존적인 유기 문제 측면에서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지나치게 변화되고, 분석되고, 파편화 되면 전체 모습을 알 수 없죠. 그러니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삶이 의미가 있는지 없

는지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20대는 행복했는데, 30대는 불행하다. 10대는 어땠는가, 또 40대, 50대는 어땠는가?

이처럼, 전체적인 의미에서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봐야지, 어느 한순간을 딱 파편해 가지고 의미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볼 수 있는 것은 인문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최근에 생물학자들도 생명현상,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통합하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생명현상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그 생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사회와 세계를 위해서 어떤 인문학적 접근만이 가능한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유비와 연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라, 이렇게 되는데 대안제시와 어떤 위기 진단 형태는 절대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역동적이고 진행적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부단히 우리가 반성해야 할 상황이지, 대안 제시 또한 그렇지만 위기진단도 어떤 식의 위기 진단인지 그게 통시적으로 가능한 진단이나, 그것도 우리가 답변할 수 없죠.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 그러지 말라, 총체적으로 역동적으로 생산적으로 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인문학자들의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인지 모르겠네요. 또 다른 질문들 하시기 바랍니다.

김회권 : 두 분 모두에게 다 질문 드릴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인문학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 이런 것들은 그 최초의 규정이 Self-Reference, 자기 창조적인지 아니면 인간 바깥에 있는 Transcendence인지. 이것을 확보하지 않고는 인간이 존엄하다는 그 명제가 자명하지가 않아요. 지금. 인간의 역사적 경험을 보면, 2차 세계 대전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 자명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거든요. 부조리 문학이 만연하듯이.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를 보면, 이미 다윈의 종의기원 때문에 그 차체가 연속적 때문에 자명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기의식 안에 자명한 지을 수 없는 존엄성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의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간 존엄성의 근거, 인간이 인문학에 숙원해야 하는 인간의 가치관과 존엄의 근거가 우리 안에는 없는데, 종교적 투신, 형상학적 투신에 대한 도이베르트가 말한 종교적 투신, 자기 바깥에 있는 창조성을 설정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종교적인 차원 없이 인간의 존엄성의 말을 입론을 성립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떤 글에도 그건 피해 갔기 때문에 글이 거의 어렵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광명 : 질문의 성격상 제가 답변하죠. 그런데 인문과학연구소나 인문대학 측에서 가능한 한 쉽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더 어렵게 못하고, 이 정도라도 쉽게 썼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김희권 교수님 좋은 질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저와의 시각 차이인데요. 이를테면 자기 지시적이냐 자기 반사적인 것이냐 하나 하고, 종교적 투신의 형이상적인 것의 근거를 볼 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 그의 종교 철학이 뭘니까 종교라는 것이 신에 대한 윤리적 접근이라고 말했거든요.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입니다. 신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이 종교지, 윤리에 내포되어 있지 윤리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지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자기 병력적인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왜 고뇌할까? 인간은 왜 불손적인 문제를 던지면서 고뇌할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지시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아니라면 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른 동물들 이를테면 개나 돼지처럼 살면 어떤 문제의식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왜 문제의식을 던지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자기 이성적인, 이성의 자기 지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종교적인 투신나 형이상적인 전망 같은 경우도 인간 스스로 스스로가 짊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즉 신에 대한 윤리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왜 인간에게 윤리적 접근이 필요한가? 그것은 모두를 위한 좋은 삶, 삶의 좋은 질을 위해서,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찾아 낸 것이 뭘니까? 선! 선함이 참 좋다. 선하다고 하는 것이 곧 윤리이고, 그리고 이제 신에 대한 것도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종교야 말로 가장 윤리적인 어떤 규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밖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은 우리 인간은 매우 타율적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철학과 신앙’ 이런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엇그저께 그러니깐 2007년 5월7일 날 한국경제 신문에 난거 보니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70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만든 커리큘럼이 37년 만에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뀌는데 바뀐 것에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문화와 믿음’이라고 하는 과목을 설정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세계 각 민족의 종교적 신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종교 신념이 다른 이유는 종교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고,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양성 이해를 위해서 ‘문화와 믿음’이라는 과목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이 있어요. 이익 폐기가 있고 등등. 저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이런 게 있어요.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커리큘럼을 37년 만에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꾸는 것에 대한 중요한 과목은 ‘문화와 믿음’. 전폭적으로 지지하고요. 참고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자 : 제가 하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할 것인가 글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제 자신의 내면적인 성찰이라든지, 제 삶의 문제라든지, 또 제 바깥 세계에와의 어떤 소통, 그런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엄청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배운 대로, 글을 과연 이것을 고집스럽게 지켜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바꿔야 할 것인지, 그래서 언젠가는 과거에 쓴 글들을 놓고 지금까지 쪽 봤는데, 확실하게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 스스로 어떤 면에서의 식적으로 변하고자 한 결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저도 신앙에 대한 요구에서 초월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글쓰기라는 것이 변모를 저의 내면 자체 내에서도 변모를 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국 두 분이 아주 좋은 발표를 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어떻게든지 적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과연 인문학이 현실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의 대학생들이 인문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인문학을 통해 어떻게 입신을 할 수 있겠는가? 참, 이게 너무나 절박한 문제입니다.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 또는 글쓰기라는 어떤 것의 실천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생활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의 어떤 그 글쓰기 스타일이 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소박하게 생각한다면 어쨌든 인문학이라는 것이 타 학문들과의 분업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저는 인문학을 배우고 연구한다는 것이 인간의 개체, 또 그 개체들이 형성하는 공동체를 어떤 그 잠재적인 가능태로, 잠재성을 가진 무한의 잠재력을 가능태로 만들거나 유지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도구의 효용가치가 끝나면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데, 그 도구의 효용가치가 어쨌든 그 먹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늘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인문학이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말하자면 여러 방면의 학문이 있지만, 그것이 인문학의 바탕을 이루면서 각 분야의 어떤 도구적인 측면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창조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다. 뭐, 저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신념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긴 하

겠지만, 지금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분화되고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제가 아까 글쓰기 문제를 제가 반성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 자신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인문학을 업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저도 아주 조그마한 집단마저도 리드하지 못하는 이런 인문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인문학이 이렇다고 내세울 수 있겠는가? 즉 우리 사회는 상당히 많이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의 고양이나 그런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인문학자들과 이 세상 변화된 세상이 소통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중들은 내년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한 것에 의하면 관심이 없어요. 인문학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인문학에 대한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고,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통렬하게 우리 인문학자들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그동안 무얼 했기에 대중들이 인문학의 존재에 대해 관심이 없느냐.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 인문학이 밥을 먹여 주느냐, 인문학이 현실의 삶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에 이르면 우리 인문학자들은 진짜로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상당히 괴롭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가 붕괴되지 않고, 미래를 연속시킬 수 있도록 발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 대중들에게 인식시켜서 인문학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이라도 불러 일으켜서 인문학이 부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는가? 사실은 우리 인문학자들의 고민과 시도들이 그러한 점에 초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관심.

상대방이 관심이 없는데, 내가 소통을 하고 의도한들 그 소통이 의미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광명 : 우리 인문학 모두에게 큰 과제를 주셨네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과제에서 한 분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인문학과를 나와서 취업이 안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자체가 취업률이 매우 낮고 청년 실업이 크게 있지만요, 인문학이 더 심한 그런 상황인 것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소통문제이긴 합니다만, 인문학을 대학에서 하면서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인문학이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글쓰기에도 재미를 이야기 했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있기 위해서는 그 인문학이 자신의 문제를 얘기해야지, 남의 문제이거나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문제라고 생각할 때, 다들 심각해질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요. 인간은 죽는다고 하는 명제는 너무나 자명하지만, 아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내일 오후 2시에 죽는다. 그러면 굉장히 일생일대의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깐 보편적인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고유한 자신의 문제로 삼는 것, 그래서 거기에 재미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인문학을 하려고 하는 본인의 각성이기도 하고, 그 사회가 그것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어떤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충분히 발휘해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인문학자들은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가 왜 자신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절박하고 심각한가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절대로 남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본문에도 말씀 드렸습시다만,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 인문학이야 말로 바로 그게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지 않고, 잠재적 경쟁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잠재력 경쟁력…….

하나, 예를 들면요. 지난 세기 말, 19세기 말에 프랑스의 유명한 공상 과학 소설가 두루 베리드가 쓴 『해저 2만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때 당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해저 탐사가 이루어지고, 잠수함도 개발되고, 쿨즈도 개발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인간은 달을 주제로 엄청난 시와 풍유를 얻었는데…….

누가 1969년에 달을 탐사할 거라고, 이태리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황당하지만 그런 상상력을 키워왔고, 인류에게 그런 상상력의 즐거움을 줌으로 해서, 결국은 자연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져서 정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연과학적인 어떤 사실 발견이, 사실 그 밑바탕은 인문과학적인 상상력이 도와서 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일깨워 주고, 그런 문제가 먼 문제가 아니고, 바로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노고를 해서 가르치고, 같이 교육하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정석 : 일단 저는 발표 내용도 그랬지만,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통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제가 과연 학자로서 인문학의 소통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실은 저도 뭐라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문학 내부에서 본다면, 학생들은 요즘 문학에 대해 관심은 없지만, 페미니즘, 곧 자기들 여성으로서의 억압에 대해, 문학이론을 제시하면 흥미 있어 합니다.

이를테면 춘향전 같은 경우도, 읽다보면 대단히 야한 부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성춘향과 이도령은 16살이죠. 지금으로 보면 중3이고요. 그런데 왜 그들이 사랑의 화신으로 부각이 되었는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대가리에 피도 안 바른 친구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코드로, 접근한다면, 학생들이 제법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이런 게 교육이구나. 아까 말한 그런 문화에 대해 일정 부분 가치가 있다는 게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동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제가 교육이나 학자로서, 그 정도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내일이나 어떤 제도권 내의 학자와 김용옥 같은 분, 아니 김종권 같은 저널리스트, 각자의 소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제가 질문을 받고 나서 김광명 교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칸트를 인용하고는 대단히 민망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지금 쓰이지 않는 언어도 많고, 단어도 많고요. 문장도 정말 어렵구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요즘 감각에 맞게 번역을 하고, 정답게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대학 안의 학자가 외부와의 소통을 꾀하는 노력이 될 수 있겠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대학자들은 칸트에 대한 자기 시각에서 좀 더 친근하고, 다정하게, 그런 책들을 쓸 수 있고, 하나하나 쌓여서 소통이라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의 그 어떤 사실, 인문학의 위기는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인문학자의 노력으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그래도 인문학이라는 게 끈끈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확보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유재 : 국어국문학과에서 현대소설을 전공하는 석사 3학기 전유재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외란 실존 문제하고, 공동 소통의 장, 이렇게 2개를 같은 걸로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일어난 소통 문제, 그래서 전문성 문제도 말씀하셨고, 아카데미한 문제, 대중들의 자분에 휘말리는 그 뭐라고 할까, 우리가 보기에는 덜 합리적인 혹은 배경하고 싶은 그런,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도 필요한 것 같지만, 현존하고, 그리고 전통문제, 역사라는 것이 사실 인간의 연속체, 인간 생활의 총집합이고, 연속체이기 때문에, 소통의 문

제가 어떻게 인문학에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 어떻게 고민하시는지, 혹 그것이 여기에 대해 갖고 계신 가치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정석 : 글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체의 의견은 먼저 답변을 하면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공동의 가치와 이념을 전제로 하긴 하는데, 물론 인문학의 어떤 공동체의 미래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그 공동체의 미래를 제시하는 것보다 그 미래적 비전을 제시할 때, 갖고 올 수 있는 위험성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인문학이 어떻게 제어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사실 공동의 가치는 대단히 위험하고, 폭력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뭐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고, 항상 그 최고의 가치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다양성을 왜곡하려는 지는, 조금만 한국의 민족주의에서 벗어나면 그 문제는 수다하게 보이는데, 인문학의 가치는, 진정한 공동체에서 어떤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전통과 그 전통의 현대와 이것도 항상 문제가 되지만, 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에 난감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전유재 : 죄송합니다. 민족주의 그런 담론의 틀을 갖고 해석을 하셨는 데요. 제가 여쭙볼 것은 몇 천 년간의 공동의 습성 있잖아요. 습관 같은 것이 축제 때, 일어났던 카오스 축제가 2,000년이 지나고, 지금처럼 올림픽에서 여전히 되풀이 되는 이런 민족의 끈끈한 정서 같은 게, 문화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특이함, 혹은 우리 정체성의 문제에 왜 가장 늦게 잡고 있는가를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민족주의라는, 저 19세기 이후 서부의 어떤 정치 철학적인 논리와 조금 다르게……. 좀

와전이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명 :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이정석 선생에게만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생각해 볼 만 한 것이라서 제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소통의 문제는 이제 말하는 사람과 말을 듣는 자, 화자와 청자의 어떤 그 존재를 전제하는 편인데,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공감을 해야 되겠죠. 공감, 공동의 이해, 그리고 ‘공감’하고 공통의 이해를 하면, 중요한 전제가 삶을 같이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과 왜 같이 삽니까?

일의 공동의 지평, 공감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삶을 공유하는 것, 그러니깐 살아가는 경험이 이제 이러한 소통의 전제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같은 시대, 같은 위치에 있던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폐쇄된 사회에서는 소통이 안 되죠. 공산주의 시대, 전체주의에서 그러니깐 이 소통에 전제가 된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자유와 개방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소통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가치라 생각되고, 그 다음 전통의 면에서 삼한시대나 부족시대 좋은 풍습들을 말하는데, 전통에만 의존하면 미래는 올 수 없죠. 그러나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즉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만들어진 역사에 구속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중적 존재인데. 그런데 어떤 전통이 미래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흔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전통 가운데, 오늘의 삶에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소위 영향성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오늘의 삶에 긍정적이며, 생산적이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만 우리는 최선이 되고, 미

래의 비전을 위해 결정하기에 아주 좋은 것만 우리에게 삶의 제시가 되고, 귀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공동체하고 이제…….

그러나 여기서 말한 공동체는 전체주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의식이고, 공동체 이념이기 때문에 이때 공동체 이념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가치관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몇 가지 정리해보면 인권·인간의 자유·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은 공동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주 폐쇄되어야 할 것은 그런 공동체 가치관은 여기서 상담할 필요가 없죠. 공동체가 번영하고,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이 인간성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항상 학문적으로도 우위에 있고, 또 분업의 과정에서 통합이 가능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기계공학이 미래를 바꾸겠어요? 생명 공학이 바꾸겠어요? 테크놀로지나 엔지니어링 가지고 미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간성이 전제 되어야지만이 그게 엔지니어링도 테크놀로지도 의미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인문학이 당면한 활성화 정책이 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희를 빙자해서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희를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이상입니다.

김회권 : 인간의 존엄성 또는 가치는 어디에,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명한 근거, 모든 사람이 보는 근거, 대다수가 보는 근거요. 그게 뭐니까? 아까 이성이라고 했습니까? 좀 불분명했거든요. 왜냐하면 인문학적 저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보면, 그런 합의적인 언어적 표현이 없어도 독재정권하에서 인권이 매각되거나 전쟁이 차단해 버리거나, 그럴 때는 누군가가 합의없이 그냥 인문학적 저술이 뛰어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많았고, 인문학적 위상이 높았는데, 지금 그런 극악무도한 인간적인, 야

만적인 공격이 없을 때는 인문학적 언어라는 것이 너무나 구체화 되어 있고, 남들과 소통이 안 되는 언어들이고요. 근데 김지하나 오정희는 시를 쓰고……. 운동가들이 그런 글을 쓸 때는 보편적인 소통이 되거든요. 인간성이, 왜 야만적인 폭력 앞에 희생당하고 있었기에, 거의 신이건 무슨 이성이건 상관없이 합의가 됐는데, 뭘 근거로 우리가 다시한번 일어나야겠나요? 전 그게 궁금합니다. 시장 정책주의적인 이 시대에 히틀러나 네로보다 이런 자들이 합의해 놓은 것보다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몰각시킬 때에 뭔가 시장과 더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질문 아닙니다. 코멘트 뭐 하시겠습니까? 전 그게 궁금합니다.

김광명 : 아주 좋은 코멘트입니다. 김희권 교수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학자이시고, 지난번에 “도올을 깨다”를 가지고서 아주 독자적인 생각을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철학자이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이 인간의 이성이기 때문에 듣기가 매우 싫으시겠죠. 신의 이성이면 참 좋을테지만, 그러나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고유는 인간에게서 나오지만, 그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또 칸트를 가지고서 또 칸트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말하는 이성을 그냥 이런저런 구분하는 인류 이성이 아닌 어떤 의미에서 초월적인 이성이라고 할까요? 신적인 이성이, 그래서 칸트 같은 학자도 매우 경건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 스스로도 독실했고, 그런데 다만 종교를 위한 종교가 아닌, 인간의 윤리, 윤리 연장선의 신을 믿는 것을 강조했죠. 이때 그런 것을 존중하는, 이때에 말하면 윤리를 굉장히 초월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박정신 : 고맙습니다. 내일 기독 시대 새벽 날개가 사회봉사관 백마당에서 오후 3시에 합니다. 목사이면서 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장인 이명진

목사가 와서 합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보니까요. 제가 3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심방자 교수님도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송실대학교 인문학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시고요. 또 김영주 선생님도 앉아 계시고, 박용삼 교수님도 앉아 계시다가 금방 나가셨고, 영문과에서도 오셨어요. 이런 현상을 보고 송실대학에서 인문학의 위기가 올수 있겠나 하는 희망적인 기쁜 마음을 가졌어요.

첫 번째로 종교적인 외부손님도 많이 오셨지만, 두 번째 포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인문학 잔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번학기에는 2회로 마감은 하지만요, 계속해서 여름 지나고 가을에 한류의 위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할 거구요.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의 역사 전쟁, 역사 전쟁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국제화 시대, 소위 세계화 시대에 번역의 문제, 번역 학이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논의하도록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김희권 교수님은 성서학 신학, 그 다음에 예술 철학자 김광명 교수님, 바로 이분들의 차이, 신학의 차를 한번 부딪쳐 보고, 조화시켜 보고, 돌파해보는 것이 이 포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시각이 각기 다른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김광명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성찰적 학문이 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회개, 자기반성, 이런 것이 소통되는 언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 원로 교수님들 안녕히 돌아가시고, 가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